

4안타 2도루... 최원준 '신들린 날'



KIA 타이거즈의 최원준이 23일 한화 이글스와 원정경기에서 7회초 안타를 날리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연습경기 2차전...KIA, 한화 6-6

증견수 출장...첫타석부터 2루타
불방망이·빠른발로 이목 집중
증견수 경쟁서 우위 선점

선발 이민우 5.2이닝 무실점
장민재와 마운드 대결 판정승

KIA 타이거즈 최원준이 4안타쇼를 펼치며 '증견수' 균하기에 들어갔다.

KIA가 23일 대전 한화생명아스파크에서 한화 이글스와 2020 KBO 연습경기 2차전을 치렀다. 불펜의 난조 속에 6점 차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6-6 무승부에 그쳤지만 최원준이 4안타 경기를 하며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이날 톱타자 겸 증견수로 나온 최원준은 첫 타석에서부터 중전안타를 터트리며 출루했다.

김선빈의 우전 안타로 2루로 향한 최원준은 최형우의 볼넷과 유민상의 적시타로 홈에 들어오며 득점도 기록했다.

2회에는 빠른 발을 과시했다. 최원준은 1사에서 우중간 안타로 두 번째 타석 만에 멀티히트를 기

록한 뒤 도루까지 성공했다.

최원준은 4회 1사에서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섰고, 이번에는 운도 따랐다. 타구가 2루수 앞으로 향했고, 불규칙 바운드로 2루수를 비껴가면서 다시 안타가 만들어졌다.

2-0으로 앞선 7회 4번째 타석에서도 최원준의 방망이는 식지 않았다.

최원준은 이번에는 우측으로 공을 보내면서 선두타자 출루에 성공했다.

4번째 안타 뒤 최원준이 다시 도루에 성공하고, 최정민과 교체됐다. 대주자로 들어간 최정민도 3루 도루에 성공하며 상대 배터리를 흔들었다.

김선빈의 볼넷과 최형우의 우측 펜스를 때리는 2루타로 1점을 더한 KIA는 이우성의 유격수 앞 땅볼로 4-0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어진 1사 2루에서 유민상이 우측 담장을 넘기면서 6-0까지 점수차를 벌였다.

하지만 불펜진이 6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

앞선 6회말 2사 만루에서 구원 등판해 공 하나로 불을 짚던 고영창이 7회말 첫 타자 노시환에게 좌전 안타를 맞고 이준영에게 마운드를 넘겨줬다.

이준영이 이용규와의 승부에서 좌익수 플라

이를 만들었지만 이후 볼넷과 안타를 각각 두 개씩 허용했다. 폭투와 우익수 송구 실책까지 나오면서 점수는 6-3까지 좁혀졌다.

2사 2-3루에서 김현준이 등판해 헛스윙 삼진과 투수 앞 땅볼로 추가 점수는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8회말 다시 등판한 김현준이 이해창의 2루타에 이어 이용규의 적시타로 1실점, 6-4가 됐다.

8-9회 공격에서 안타 하나밖에 더하지 못한 KIA가 사이드암 변시원으로 9회말을 맞았다.

변시원이 이성열과 김문호에게 연속 2루타를 허용하면서 6-5까지 좁혀졌다. 정진호까지 세 타자 연속 안타가 나왔고, 증견수 희생플라이로 KIA가 6-6 동점을 허용했다. 이후 1사 1루에서 변시원이 노시환을 병살타로 처리하면서 경기는 그대로 무승부로 끝났다.

한편 치열한 경쟁 끝에 올 시즌 KIA의 선발 자리를 차지한 이민우는 한화 장민재와의 마운드 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이민우는 제구 난조로 5개의 볼넷을 허용했지만 5.2이닝 4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으로 선발 역할을 완수했다. 장민재는 5이닝 7피안타 2볼넷 6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연습경기 팀당 2경기 추가 편성

이달 29일·다음달 1일

KBO 연습경기 추가 편성 일정이 확정됐다.

KBO는 23일 KBO 연습경기를 추가 편성해 발표했다. 팀당 2경기씩 총 10경기가 더 열리며 29일(수)과 5월 1일(금) 각각 5경기씩 진행된다.

KIA 타이거즈는 오는 29일 대구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경기를 갖고, 내달 1일에는 안방에서 NC 다이노스와 추가 경기를 치른다. KIA는

앞서 25일과 27일에도 NC와 두 경기를 치른다.

모든 경기는 오후 2시에 시작된다. 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 경기로 변경된다. 중계 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27일 문학구장에서 예정된 두산 베어스와 SK 와이번스의 경기는 구단의 요청으로 경기 개시 시간이 오후 6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이보다 좋을 순 없어...KIA 5강은 확실”

위더마이어 수석 코치

한국, 코로나 대응 세계 최고
광주, 생활인프라 빼어나
KIA 강점은 젊은 선수
수비 중점 지도...가을잔치 기대

“이 얼마나 좋은가!”

KIA 타이거즈의 위더마이어 수석코치가 ‘광주 찬가’를 부르며 유쾌한 2020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뉴욕양키스 출신인 위더마이어 수석코치는 윌리엄스 감독과 에리조나 시절 인연을 맺었고, 워싱턴에서 수비 코치로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그는 KBO리그에서 다시 윌리엄스와 한 배를 탔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비상 상황 속 낯선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위더마이어 수석코치는 “원더풀”을 외쳤다.

그는 “잘 지내고 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 정말 훌륭하다. 세계의 모델이 될 것이다”며 “시즌이 다시 시작되는 것에 흥분된다. 코로나 문제가 심각했는데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야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만이 야구를 하고 있지만 KBO 수준이 더 높다. KBO가 전 세계에 노출돼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더 많은 미국 언론이 이곳 야구에 관심을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기회다”고 말했다.

또 “KIA 구단도 대응을 잘하고 있다. 덕아웃, 클럽 하우스 생활 등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 멕시코,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등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는데 이곳에서 생활이 최고다. 광주는 훌륭한 도시다”며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좋은 아파트, 코너마다 편의점이 있고, 좋은 음식과 음식집, 맥주가 있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감사하기, 긍정적 생각’을 인생 철학으로 삼고 있는 그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경기 내내 큰 소리로 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분위기를 띄운다.



그는 “예전 한국 지도자들은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다. 나는 선수들이 두려움 없이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플레이하는 걸 원한다”며 “경기를 하다 보면 실책도 할 수 있다. 다음 플레이를 잘하면 된다. 선수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도록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게 내 역할이다”고 말했다.

또 수석코치로서 한 수 더 멀리보며 윌리엄스 감독을 조력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

수석코치 역할에 대해 그는 “경기하다보면 여러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감독님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한다. 항상 내 이야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독님이 열린 마음으로 들려고 한다”며 “내가 본 것을 최대한 공유하려고 한다. 토니 라루사 감독이 한 수 내다보는 경기 운영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수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수비’다. 그는 직접 선수들에게 평고를 쳐주면서 수비 훈련에 함께한다.

위더마이어 수석코치는 “수비는 팀 승리와 연관이 있다. 브루스, 가봉이 심커블 투수인 만큼 땅볼이 많이 나오니까 수비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양현종이 나오는 경기에서 많은 안타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경기에서 수비가 팀 승리의 주춧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야수들은 땅볼 연습을 매일 해야 한다. 외야수들은 베이스에 원바운드로 정확하게 던지도록 하는 것에 신경 쓰고 있다. 원바운드로 정확하게 송구하면 태그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며 “연습 때 잘해야 한다. 연습하면 시합 때 자동으로 나오게 된다. 습관이 되어야 한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그가 KIA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건 ‘영건’. 플로리다 캠프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은 그들이 팀의 미래로 성장해줄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가을 잔치’에 대해서도 확신의 목소리를 냈다.

위더마이어 수석코치는 “우리는 상위 5위권에서 시즌을 끝낼 것이다. 우승을 할 수 있을지 아날지는 모르겠지만 5강은 확실하다”며 “5위 안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나. 포스트 시즌을 가본 양현종, 브루스도 있다.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재계약’ 박미희 감독 “흥국생명 정상 지켜낼 것”

여자프로배구 흥국생명은 공격을 조율하는 세터와 후방을 지키는 리베로를 바꾸고 2020-2021시즌을 준비한다.

흥국생명은 23일 “여섯 시즌 동안 팀을 안정적으로 이끈 박미희(57) 감독과 2년 재계약했다”고 발표했다. 박 감독은 여자프로배구 사령탑으로는 ‘최고 대우’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미희 감독은 재계약 발표 직후 언론과 통화에서 “구단에서 내게 또 기회를 주셨다. 감사하다.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고 “언제나 시즌이 종료하면, 지난 시즌을 돌아보며 새 출발을 준비한다. 그러나 2020-2021 시즌에는 더 특별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박 감독은 “김혜란과 조소화 선수가 떠나 아쉽다. 두

선수는 늘 고마운 존재였다”며 “김혜란이 주는 안정감은 정말 대단했다. 조소화도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우리 팀의 (2018-2019시즌) 통합 우승을 이끈 훌륭한 세터다”라며 두 선수와 함께 한 시간을 돌아봤다.

이제는 세터 이다영이 공격을 조율하고, 신연경 혹은 도수빈이 리베로로 뛰어야 한다.

박 감독은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선 기본이다. 감독이 되니 하루하루가 새롭더라. 최선을 다하는 게 감독의 역할인 것 같다. 주어진 2년 동안 모든 것을 쏟아내겠다”며 “스포츠계 여성 후배들이 열심히 도전하고 있다. 계속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고 영역을 넓혔으면 좋겠다. 내가 걸어온 길이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정말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연필뉴스